

“ 치유와 구원(Therapy & Salvation) ”

■ 이종윤 원로목사

구약성경에서는 「질병과 고뇌는 인간의 쫓김이다」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신다」고 했다.(시 107:17-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된 이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까」(요 9:2) 물었던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3) 하셨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창 1:31) 하셨으나, 사람들이 죄를 범한 후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창 3:17,18) 구약성경에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창 50:1-3) 예언서, 역사서, 지해문학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역할로 언급되어 있다.(대하 16:11,12) 에레미야서에는 「의사의 무가치함과 그들 노력이 치료에 도움이 없다」(렘 8:22-9:6)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인간생명에 처방자시며, 인간 중에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다 한다. 신지서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렘 14:12) 등의 연약적 심판의 문맥 아래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났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께서도 속담적 표현 즉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눅 4:23)든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골 4:14)라고 불렀지만 의사(헬, hiatros)라는 단어는 신약에는 7번 나타났지만 예수께서 병자와 부정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치유기적과 자연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주(Lordship of Life) 되심과 자연의 주(Lordship of Nature) 되심을 계시하시므로 죄를 사하심과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부활을 통해 영·육을 구원하시는 전인(全人) 구원을 계시하셨다.

의료기술과 치유를 복음서에서 그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에게 성전에 가서 깨끗해진 것을 보이라 하셨고(막 1:44, 눅 5:14),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다.(요 9:1-41) 이것들은 회랍인들의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종교적 경결 행위이며 계약백성에 참여키 위한 종교적 규례로 볼 수 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를 고치신 주님의 치유 기적을 종교지도자들이 인정치 않으려 한 것으로 보아, 헬라인의 의료 행위와 그 형태가 비슷한 점도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를 주장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자연 질서를 넘어서라도 자기 백성이 자기 뜻과 일치할 경우 질병이 없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치유자라고 선언하신다.(출 15:25, 26)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낮게도 하시며,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느니라 심판과 옹호를 하신다.(신 32:39) 호세아도 이스라엘을 고치실 이는 앗시리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호 6:1) 치유자로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고치시고(렘 3:22)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신다.(렘 30:17) 개인을 고치시고 마음을 갱신시키는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자연까지 주장하신다.(겔 47:8-12) 하나님의 치유사역은 말라기서, 이사야서, 역대하, 시편에서도 나타난다. 치유사역의 동기는 새로운 세대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도 연관된다.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처음 세 치유기적들 ①나병환자 ②백부장의 하인 ③베드로 장모의 치유기적 중 나병환자는 당시 격리상태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염병으로 본 확률이 높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으로 그 병이 깨끗이 물러갔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방인인 그 하인이 치유를 받았다. 베드로 장모의 경우는 주님께서 이사야 53:4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친히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에서 「중풍 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고쳐주셨다.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2, 13) 여기서 병은 죄를 말한 것이고, 질병을 고치심이 죄를 고치시고 용서하심을 말씀한 것이다. 영적 병든 자가 치유기적을 통해 나음을 입는 것은 메시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은혜로 전인(全人)구원을 받는 것의 예표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사전 참가신청 없이 오시거나 조금 늦게 오신 분들 중 일부가 방역수칙상 허락된 인원이 초과되어 미리 별도로 준비한 102호 예배실에서 대형 영상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린 것 외에는 큰 어려움 없이 교회에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50명 미만의 인원만 참석하는 교회에서의 1,2,3부 예배와 각 처소에서의 온라인 영상예배를 함께 드리며, 1,2,3부 예배 모두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영상예배 지침에 따라 예배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하고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은 아래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927_sermon.jpg


아울러 교회예배에 참석하려는 성도님들 중 지난주 참석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주 예배와 다른 시간의 예배로 옮겨 참석할 성도님 또는 새로이 참석을 원하는 성도님만 다락방장이나 교구간사님들께 알려주시고 1,2부 보다는 가능한 약간의 여유가 있는 3부 예배를 이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찬양예배 및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p>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서울교회QR코드</p> 
-------------------------------	---	--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p>	<p>전도사 박미라</p>	<p>교육전도사 김은숙</p>	<p>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p>
<p>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기회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해정)러시아, 허창범(현대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은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라, 사지, 에베(인도), 스토르토티로이, 필리핀, 프란소드, 수레시, 수버샤, 알로롱, 비사누뵈드, 보다소프, 린롱, 수린존(벵골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인)필리핀,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미다카(스리)</p>			

	<p>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p> <p>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p>	

“ 맑은 자에게 요구되는 충성 ”

■ 고전 4:1-5
본문은 사역자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말씀으로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하는지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본문에서 사도가 사용한 일꾼은 ‘후페레타스’(ὕμπερετας)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인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종속된 하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후페레타스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노예적인 삶을 사는 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직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노를 저을 때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선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듯이 사역자는 자유인으로 일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라고 아니라 구조선의 총책임자인 선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노를 젓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교회의 머리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보다 좁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일꾼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니면 사단의 일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판단할 객관적 기준은 있을까요? 본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충성이라는 사역의 자세고 두 번째는 사역자는 오직 복음으로만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며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충실히 공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2. 맑은 자에게 요구되는 충성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행 6:3). 사도는 칭찬 듣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자기 분수를 알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지기나 주인처럼 행세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반드시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충성의 또 다른 모범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눅 17:10).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나 뭇 바라고 기대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든 없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우리의 왕위를 영영히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에서 받는 보상에 만족하지 말고 녹이 슬지도 않고 도둑이 들지도 않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보물들을 쌓아두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맺는 말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성도들을 하늘나라 안전한 포구로 인도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이고, 우리는 모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풍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녀야 혼절하는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장이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교회생활이라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 구조선에 승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을 통해서 생명의 꿀을 한량없이 받아먹으며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서장원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전재홍 목사	박정선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29:1-2...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4(시 46)...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68(32)...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4:1-5...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 ...“니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서창원 목사
- * 찬 송 Hymn450(376)...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이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사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미움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 4:5)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1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양예배(인터넷 영상)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장석남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4:1-3 인 도 자
- 찬 송 85(85) 다 함 께
- 기 도 가 족 중
- 성 경 뱀후 1:10-11 인터넷 영상
- 설 교 ...“재자도(4) 믿음은 부단한 전전이다” ... 인터넷 영상
- 찬 송 310(410) 다 함 께
-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인터넷 영상)

오후 7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서명철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계 2:10 인 도 자
- 찬 송 333(381) 다 함 께
- 기 도 가 족 중
- 성 경 수 7:1-15 인터넷 영상
- 설 교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 인터넷 영상
- 합심기도 인터넷 영상
- 주기도 인터넷 영상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 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193명	228명	1,421명	208명	1,504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9/2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20일	헌 금	33,863,800	
	교회학교운영비		444,000
	선 교 비		300,000
	구 제 비		300,000
	연합사업비		500,000
	지원교회		2,600,000
	인 건 비		6,072,000
	출 판 비		210,000
	복리후생비		96,000
	통 신 비		427,730
	수도광열비		25,320
	차량유지비		640,762
	환경유지비		71,800
	수선유지비		100,000
	식당운영비		727,440
	합 계	33,863,800	12,515,052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